

# ‘고전문명과 현대세계’, 세계고전학대회



▲ 내외빈들이 고고학박물관에서 하남성 안양 은허 유적지에서 출토된 은상시대 마차를 관람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과학원, 교육부, 문화관광부와 그리스 문화부, 아테네과학원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세계고전학대회가 11월 7일~8일 북경에서 있었다.

대회에는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 유명 문화인사, 언론인,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대표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 내외빈들은 고전문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대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한층 공감대를 형성했는바 고전문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보여주었으며 인류의 나아갈 길을 더 잘 조명했다.

‘고전문명과 현대세계’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고전문명의 연구 관점에서 출발해 인류사상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역사적 지혜를 총화하고 인류 문명의 전통을 발굴하며 문명 교류와 상호 벤치마킹을 강화하여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현대세계 문제 해

결에 지혜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며 인류 발전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사상적 동력을 주입하고 글로벌 문명 제의를 실천하며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더욱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

회의 기간 ‘고전문명의 의리와 정신’, ‘고전 어문과 고전학의 전통’, ‘고전학과 문명의 상호 벤치마킹’, ‘고전학과 경사(經史) 전통’, ‘유가사상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윤리적 대화’, ‘고전 지혜와 디지털 시대’, ‘고전학과 인류의 미래’ 등을 의제로 대화 토론이 이루어졌다.

대회 기간 또 고고학 및 중화문명 기원 전시회, 고전학 연구 결과 전시회, ‘고대 그리스의 예술과 삶’ 전시회 및 기타 특별 전시회, 특별 문화 공연이 펼쳐졌으며 산동, 하남, 사천에서 ‘세계 고전학 대회 및 중국 위킹’ 행사를, 관련 대학들에서는 ‘고전학 대학 여행’ 및 기타 행사를 마련했다.

/ 중국국제방송넷

## ‘고고학과 중화문명 기원 전시회’

중국고고학박물관에서 11월 6일 오전, 제1회 세계고전학대회-‘고고학과 중화문명 기원 전시회’가 열렸다. 세계 각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와 학자, 유명 문화인사, 언론인, 싱크탱크 전문가, 청년대표 등 내외빈 400여명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내외빈들은 ‘백만년 인류사-니하만 유적군’ 코너를 방문하고 2004년 하남성 안양 은허 유적지에서 출토된 은상시대 마차를 관람했으며 내몽골 오한홍릉과 유적지에서 출토된 옥기를 살펴보고 편종 연주를 체험하고 북신 유적과 북수령 유적지에서 출토된 문물을 관람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중국국제방송넷

## ‘마음을 울리는 중국식 아름다움’

### ‘봉관’, 요즘 북경에서 가장 갖고 싶은 굿즈의 하나



▲ 봉관 북마크 (书签)

SNS에 게시한 것을 발견했다. 디자이너는 이 문물이 인기가 있음을 판단해 곧장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대중의 눈은 예리하다. 훌륭한 굿즈는 자연스럽게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추구와 기대를 저버리면 안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는 줄곧 최고의 품질을 추구

해왔다.”

국가박물관 경영개발부 부주임 료비는 처음 출시된 목제 봉관 랭장고 자석 디자인 과정을 레로 들며 3종 나무 재질을 겹쳐 만든 ‘봉관’은 금속과 유사한 광택을 낼 수 있고 평면에 인쇄된 구슬은 맨눈으로 3차원(3D)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 인민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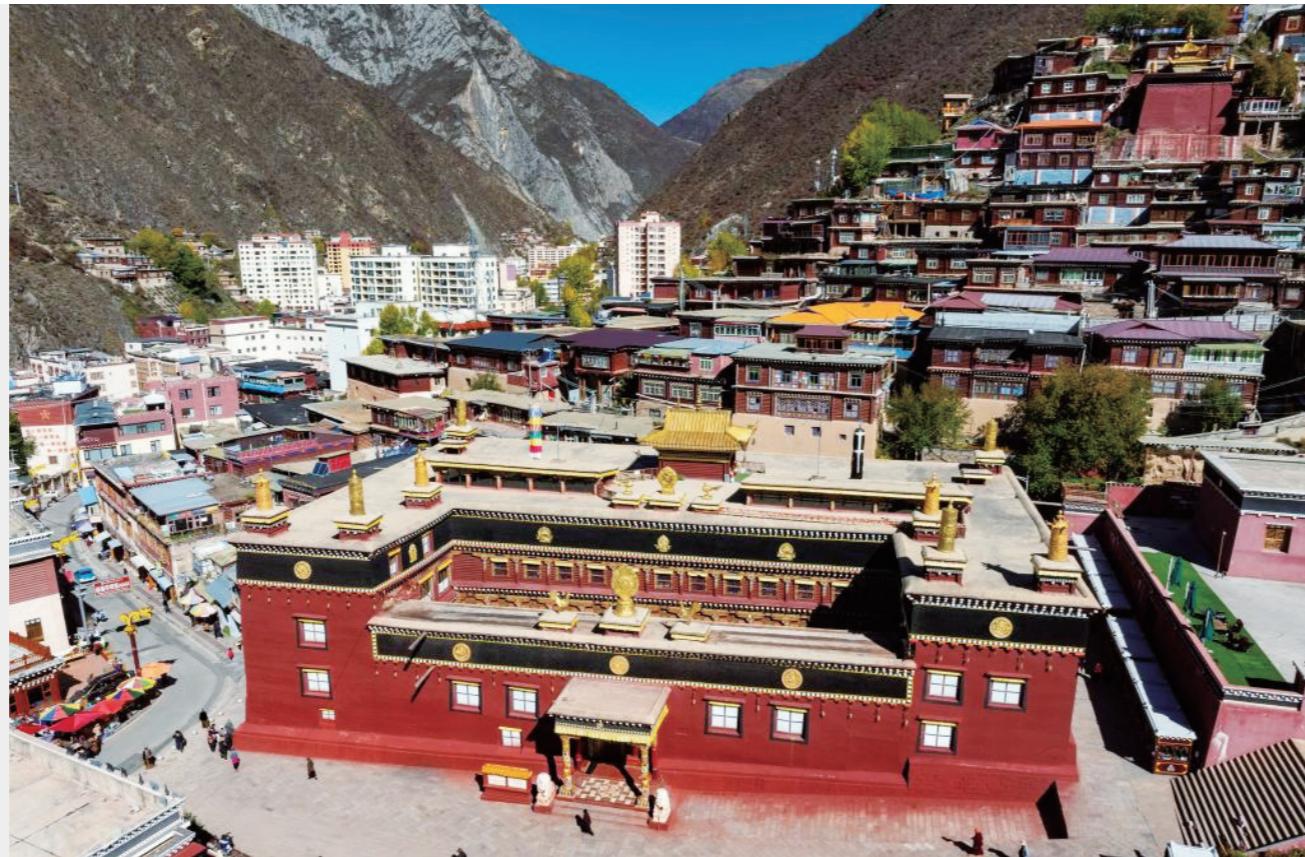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더거인경원’

1729년에 건설된 더거인경원(德格印經院)은 우리 나라 장족 집단 거주지 3대 인경원 가운데 하나로 이곳의 조판 인쇄 공예 기술은 인류 조판 인쇄 역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11세기 이후의 각종 중요한 장어 고전 문헌을 포함한 32만여개의 조판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2024년 5월, 서류문헌인 《더거인경원 원장조판(院藏雕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목록》에 등재되었다.

사진은 11월 2일에 촬영한 사천 더거인경원의 외경. / 중국넷



## 서장 부다라궁 ‘달콤한 벽’ 새 단장



최근 서장 부다라궁은 일년에 한 번씩 하는 외벽 도색 작업을 시작했다. 부다라궁 관리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우유, 꿀, 흰설탕, 흑설탕, 샤프란(藏紅花) 등 원료와 각종 석회를 혼합해 흰색, 흑색 도료를 만들어 부다라궁 외벽 도

/ 인민넷

## 팽창하는 애완동물 소비 문화



▲ 깜찍한 터널하우스에서 쉬고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

우리 나라 반려동물 소비 시장 열기가 뜨겁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 잠재력이 방출되면서 애완동물 경제, 반려동물 예방의학, 정밀 케어 등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 잠재된 비즈니스 기회 방출

심정아(23세)는 반려견 골든리트리버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다. 개 사료 브랜드를 꿈꾸며 고르고 간식과 장난감을 맞춤 제작한다. 숟가락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목욕을시키고 이따금 미용 씨비스도 받는다.

그는 “반려동물의 사료, 간식, 장난감, 의료보건에 매월 1,500원 정도 쓰고 있다.”고 말한다.

토보에 따르면 펫코노미가 부상하면서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개·고양이 전자제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이상 늘었다. 고양이 우비와 개·고양이 해어 액세서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214% 씩 급증했다.

강소성 회안시에 위치한 강소위홍 반려동물용품회사의 생산 공장이 개업 생산으로 분주하다. 흐자몽 사장은 “반려동물 간식 제품이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인터넷 + 애완동물 경제’의 비즈니스 기회를 겨냥해 국제시장 판로 개척에 나섰다. 소주파랑전자상거래회사의 쇼룸은 갖가지 반려동물 의류로 가득하다. 양림 사장은 “40개 이상의 자체 글로벌 브랜드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복합 성장률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던 일부 쇼핑몰, 호텔, 레스토랑도 규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상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조종연은 휴일이면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 소주 하이테크산업개발구에 있는 호텔에서 여가를 즐긴다. 그는 “호텔에서 반려동물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엄격한 위생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걱정없이 휴일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 세심한 케어는 필수

반려동물을 향한 정서적 요구가 높아지고 양육 기준도 동반 상승하면서 세심한 케어에 신경 쓰는 소비 추세가 생겨나고 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진천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고양이의 텔을 빚겨준다. 그는 “고양이는 신진대사가 빨아 텔이 금방 자라는데 빗질을 해주면 텔뭉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경에 거주하는 회사원 서령은 반려동물을 마치 ‘갓난아기’처럼 기르고 있다. 그는 디퓨처 하나도 신경 써서 고르며 “반려동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천연성분으로 이뤄진 제품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일반 식품이나 용품 외에 반려동물 건강 보조 식품, 스마트 장비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6·18 쇼핑 페스티벌’ 기간 토보의 반려동물 스마트 드라이룸과 스마트 탈취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335% 폭증했다.

### 새롭게 각광받는 반려동물 예방의학

서령은 2년 전부터 관절 건강, 치아 위생 등 반려견의 건강 예방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영양 관리, 체중 조절 등 반려동물 예방의학에 관심을 갖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관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예방의학은 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얼마 전 중국수의사협회 등이 공동 개최한 ‘제7회 로열 캐년 수의사대회’에서 영국의 한 관계자는 예방의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수용하려면 질병 치료 위주에서 질병 예방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수의사협회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인 신성봉은 “반려동물 의료는 반려동물의 일상 생활에서 필수 소비 품목 중의 하나”라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치료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고 관련 인재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신민넷